

우리 조국에서 너성해방, 너성존중의 노래는 어제도 울렸고, 오늘도 울리고 있으며 매일에도 울릴 것이다.

너성혁명가,

선군조선의 첫 너성초음속전투기 비행사들이 조급함, 힘들 동무들을 사랑의 힘들에 안으시고 기념사진을 찍으셨던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모습이 눈물겹게 안겨온다. 첫 너성 초음속전투기비행사들의 단독비행 모습을 대견하게 바라보시며 너어린 처녀들이 정말 용하고, 하늘의 꽃이라고, 전군사에 처음으로 너성초음속 전투기비행사들이 태어났다고, 남성들도 타기 드는 초음속전투기를 쳐내면서 단독으로 떠난다는 것은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 만한 성과이라고, 기록하다고 시종 복의 미소를 지 못하신 경애하는 원수님!

추격기비행사로 자라난 조급항, 힘들 동무들의 비행훈련을 여러 차례 보아주시고 그들을 초음속전투기비행사로 키워주신 분은 경애하는 우리 원수님이시다.

만경대가문과 더불어 빛나는 조선 너성운동의 영광스러운 역사가 이처럼 격동의 선군시대에 더욱 눈부시게 이어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 조국의 경이적인 현실이다.

*
수수천년 무지와 물배속에 지지리 도 학대받고 수모당하며 남존녀비의 억눌림으로 기를 펴지 못하고 살아온 너성들이 지난날 조선인들이었다. 우리 너성들이 어이 있을 수 있으으라.

온갖 불간적악과 폐품에 시달리면서 조국에 이 나라 너성들의 기구한 운명의 혈사를 아름 마음으로 보시며 우리 수령님께서 남녀평등전법령의 한조항한조항에 심흔을 쏟으신데 해방후령의 그 사연깊은 밤을.

남녀평등전법령발표, 천결반결의 수난의 얼음을 깨버린 너성제생의 혁사사변이었으며 조국에 이은 또 하나의 해방, 너성해방의 자랑스러운 죽성이였다.

이 거대한 사변으로 하여 조선 너성운동은 자기 밝전의 일대 전성기, 찬란한 개화를 맞이하였다.

그 격동적인 날 우리 수령님 조선 너성들의 천만년 앞날을 축복하시어

녀성혁명가, 빛나는 그 부름 속에

울려신 선언이 오늘도 우리 너성들의 가슴에 깨끗 메아리친다.

두고보시오, 수백년 잠자던 우리

너성들이 이제 무서운 힘으로 세계

를 높여우게 될거요!

너성문화는 너성들의 자주적인 삶

과 존엄, 사회적지위와 역할에 관한

문제이다.

역사상 처음으로 너성들의 지위를 혁명의 주력군의 높이에 올려세우시고 너성들의 역할을 혁명의 한쪽수

를 높여우게 될거요!

너성문화는 너성들의 자주적인 삶

과 존엄, 사회적지위와 역할에 관한

문제이다.

역사상 처음으로 너성들의 지위를 혁명의 주력군의 높이에 올려세우시고 너성들의 역할을 혁명의 한쪽수

를 높여우게 될거요!

너성문화는 너성들의 자주적인 삶

과 존엄, 사회적지위와 역할에 관한

문제이다.

역사상 처음으로 너성들의 지위를 혁명의 주력군의 높이에 올려세우시고 너성들의 역할을 혁명의 한쪽수

를 높여우게 될거요!

너성문화는 너성들의 자주적인 삶

과 존엄, 사회적지위와 역할에 관한

문제이다.

역사상 처음으로 너성들의 지위를 혁명의 주력군의 높이에 올려세우시고 너성들의 역할을 혁명의 한쪽수

를 높여우게 될거요!

너성문화는 너성들의 자주적인 삶

과 존엄, 사회적지위와 역할에 관한

문제이다.

역사상 처음으로 너성들의 지위를 혁명의 주력군의 높이에 올려세우시고 너성들의 역할을 혁명의 한쪽수

를 높여우게 될거요!

너성문화는 너성들의 자주적인 삶

과 존엄, 사회적지위와 역할에 관한

문제이다.

역사상 처음으로 너성들의 지위를 혁명의 주력군의 높이에 올려세우시고 너성들의 역할을 혁명의 한쪽수

를 높여우게 될거요!

너성문화는 너성들의 자주적인 삶

과 존엄, 사회적지위와 역할에 관한

문제이다.

역사상 처음으로 너성들의 지위를 혁명의 주력군의 높이에 올려세우시고 너성들의 역할을 혁명의 한쪽수

를 높여우게 될거요!

너성문화는 너성들의 자주적인 삶

과 존엄, 사회적지위와 역할에 관한

문제이다.

역사상 처음으로 너성들의 지위를 혁명의 주력군의 높이에 올려세우시고 너성들의 역할을 혁명의 한쪽수

를 높여우게 될거요!

너성문화는 너성들의 자주적인 삶

과 존엄, 사회적지위와 역할에 관한

문제이다.

역사상 처음으로 너성들의 지위를 혁명의 주력군의 높이에 올려세우시고 너성들의 역할을 혁명의 한쪽수

를 높여우게 될거요!

너성문화는 너성들의 자주적인 삶

과 존엄, 사회적지위와 역할에 관한

문제이다.

역사상 처음으로 너성들의 지위를 혁명의 주력군의 높이에 올려세우시고 너성들의 역할을 혁명의 한쪽수

를 높여우게 될거요!

너성문화는 너성들의 자주적인 삶

과 존엄, 사회적지위와 역할에 관한

문제이다.

역사상 처음으로 너성들의 지위를 혁명의 주력군의 높이에 올려세우시고 너성들의 역할을 혁명의 한쪽수

를 높여우게 될거요!

너성문화는 너성들의 자주적인 삶

과 존엄, 사회적지위와 역할에 관한

문제이다.

역사상 처음으로 너성들의 지위를 혁명의 주력군의 높이에 올려세우시고 너성들의 역할을 혁명의 한쪽수

를 높여우게 될거요!

너성문화는 너성들의 자주적인 삶

과 존엄, 사회적지위와 역할에 관한

문제이다.

역사상 처음으로 너성들의 지위를 혁명의 주력군의 높이에 올려세우시고 너성들의 역할을 혁명의 한쪽수

를 높여우게 될거요!

너성문화는 너성들의 자주적인 삶

과 존엄, 사회적지위와 역할에 관한

문제이다.

역사상 처음으로 너성들의 지위를 혁명의 주력군의 높이에 올려세우시고 너성들의 역할을 혁명의 한쪽수

를 높여우게 될거요!

너성문화는 너성들의 자주적인 삶

과 존엄, 사회적지위와 역할에 관한

문제이다.

역사상 처음으로 너성들의 지위를 혁명의 주력군의 높이에 올려세우시고 너성들의 역할을 혁명의 한쪽수

를 높여우게 될거요!

너성문화는 너성들의 자주적인 삶

과 존엄, 사회적지위와 역할에 관한

문제이다.

역사상 처음으로 너성들의 지위를 혁명의 주력군의 높이에 올려세우시고 너성들의 역할을 혁명의 한쪽수

를 높여우게 될거요!

너성문화는 너성들의 자주적인 삶

과 존엄, 사회적지위와 역할에 관한

문제이다.

역사상 처음으로 너성들의 지위를 혁명의 주력군의 높이에 올려세우시고 너성들의 역할을 혁명의 한쪽수

를 높여우게 될거요!

너성문화는 너성들의 자주적인 삶

과 존엄, 사회적지위와 역할에 관한

문제이다.

역사상 처음으로 너성들의 지위를 혁명의 주력군의 높이에 올려세우시고 너성들의 역할을 혁명의 한쪽수

를 높여우게 될거요!

너성문화는 너성들의 자주적인 삶

과 존엄, 사회적지위와 역할에 관한

문제이다.

역사상 처음으로 너성들의 지위를 혁명의 주력군의 높이에 올려세우시고 너성들의 역할을 혁명의 한쪽수

를 높여우게 될거요!

너성문화는 너성들의 자주적인 삶

과 존엄, 사회적지위와 역할에 관한

문제이다.

역사상 처음으로 너성들의 지위를 혁명의 주력군의 높이에 올려세우시고 너성들의 역할을 혁명의 한쪽수

를 높여우게 될거요!

너성문화는 너성들의 자주적인 삶

과 존엄, 사회적지위와 역할에 관한

문제이다.

역사상 처음으로 너성들의 지위를 혁명의 주력군의 높이에 올려세우시고 너성들의 역할을 혁명의 한쪽수

를 높여우게 될거요!

너성문화는 너성들의 자주적인 삶

과 존엄, 사회적지위와 역할에 관한

문제이다.

역사상 처음으로 너성들의 지위를 혁명의 주력군의 높이에 올려세우시고 너성들의 역할을 혁명의 한쪽수

를 높여우게 될거요!

너성문화는 너성들의 자주적인 삶

과 존엄, 사회적지위와 역할에 관한

문제이다.

역사상 처음으로 너성들의 지위를 혁명의 주력군의 높이에 올려세우시고 너성들의 역할을 혁명의 한쪽수

를 높여우게 될거요!

너성문화는 너성들의 자주적인 삶

과 존엄, 사회적지위와 역할에 관한

문제이다.

역사상 처음으로 너성들의 지위를 혁명의 주력군의 높이에 올려세우시고 너성들의 역할을 혁명의 한쪽수

를 높여우게 될거요!

너성문화는 너성들의 자주적인 삶

과 존엄, 사회적지위와 역할에 관한

문제이다.

역사상 처음으로 너성들의 지위를 혁명의 주력군의 높이에 올려세우시고 너성들의 역할을 혁명의 한쪽수

를 높여우게 될

전쟁의 3년간

의지적으로 (♩=76)



1. 전쟁의 삼년세월 길었던가 짧았던가 불속에 고통속에 — 잠겼던 삼년 —



얼마나 많고 많은 아까운 생들이 — 싸늘히 쇠여 — 누웠나 — 이 땅



의 — 모든이 들이 혈육임 고 홀린 눈물을 — 영



원히 잊지 않아 — 력사의 상처로된 전쟁의 삼년간

2. 산야엔 흙보다도 탄피가 더 밟히고

강들엔 눈물과 피가 흘렀네

새들도 사라지고 꽃들도 재가 된

참혹한 전쟁이였네

거리와 마을들에선 애처로운 울음소리뿐

영원히 잊지 않아 아파도 기억하려 전쟁의 3년간

3. 숨이 전 전우들을 묻지도 못했다네

덮어줄 기록마저 총탄에 찢겼네

피고인 가슴으로 전우와 작별하며

전격로 열어 나갔네

멸적의 균위부대들 전투포화 헤친 그 걸들

영원히 잊지 않아 어떤 길이였는지 전쟁의 3년간

4. 전쟁의 3년세월 목숨과 맞바꾸어

조국의 존엄과 명예를 지켰네

귀한 것 잃었지만 귀한 것 얻었네

위대한 승리란 그것을

소중한 모든 것을 시련에서 구원한 날들

영원히 잊지 않아 위대한 전승사를 전쟁의 3년간

작자: 김재호
작곡: 설래성

선군조선의 힘

지금은 나라는 크나큰 궁지와 환희로 세차게 설레이고 있다. 전화의 군복을 떨쳐입은 전쟁로병들과 위대한 년대의 승리자들에게 뜨거운 경의와 열렬한 축하를 드리는 온 나라 전체 인민들,

온 강산에 차넘치는 천만군민의 신심넘친 모습을 볼수록 하나님의 잊지 못할 이야기가 떠오른다.

경애하는 김정은同志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위대한 선군의 기치를 높이고 영원히 승리만을 떨쳐갈 것입니다.»

미제와 남조선피로당의 대규모 친위전쟁으로 온 나라에 일축족발의 위기가 조성되었던 주제 101(2012)년 3월 어느날이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적들과 치열한 대치상태를 이루고 있는 관문점을 찾으시였다.

조국의 제 1 선관문을 밀워직

하게 지켜가고 있는 관문점 초명들이 보고싶어 왔다고 환하게 웃으시며 말씀하신 경에 하는 원수님께서는 관문 각로대에 나서서 적정을 보여하시고 관문점의 어려움을 돌아보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과 어버이장군님의 생생한 모습을 블수록 하나님의 잊지 못할 이야기가 떠오른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정전담 판회장을 헤아보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밑에 빛나는 전승을 안아온 우리 군대와 인민의 승리자의 모습과 전쟁을 일으킨지 1년만에 휘기를 끌고 정전담판을 제기한 미제의 폐배상이 생동하게 어려오는듯 싶은 회의장,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를 그려보시는 원수님께서는 적들과 치열한 대치상태를 이루고 있는 관문점을 찾으시였다.

그러시고는 의미심장한 어조

적숙원을 반드시 성취하여야 한다고 힘주어 말씀하시였다.

어느 순간에 불과 물이 오가는 치열한 격전장으로 번져질지 모르는 최전방에 나오시여 무비의 달려파 배방으로 적들의 침략적 동을 물거품으로 만드시며 선군조선의 최후승리를 선언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

그이의 천출위인상을 우러르며 일군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은 선군조선의 힘이고 승리이시며 위대한 영장을 모시여 우리 군대와 인민은 평승불쾌한다는 신념을 더욱 굳게 간직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은 영웅조선의 힘, 전승의 힘과 전통을 영원히 빛내여나가게 하시는 선군조선의 힘이시다.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이 세계에 나래치고 1950년대의 조국수호정신을 차넘치는 7월의 하늘과 천만군민의 이런 신념의 목소리가 우렁차게 울려퍼지고 있다.

본사기자 정선철

조국의 바다를 지켜 단 4척의 어뢰정으로 떠나는 선수는 섬이리고 으스대면 미제의 중순양함 「불모」호를 통쾌히 바다속 깊이 수장해버린 영웅한 해병들,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탑을 찾은 참관자들은 가볍한 전회의 나날 당시 수령,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청춘도 생명도 아낌없이 바쳐싸운 영웅전사들의 군상앞에서 발길을 떠지 못한다.

이들의 가슴마다에 끊고 있는 것은 1950년대의 조국수호정신으로 최후승리의 7·27을 안아온 원수님의 맷세이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릴학락

용전사들의 위훈도 넓도 세월의 언덕을 넘어 더욱 친환히 빛을 뿐리게 되었다.

강철의 형장 위대한 수령님의 명령지시로 조국의 촌토를 목숨바쳐 지켜낸 조국해방전쟁참전자들의 위훈과 조국수호정신을 훠세만세 빛내여가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도덕의리의 세계속에서 군공메달은 그토록 값 높고 소중한것으로 되었다.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시기를 말하여주는것으로 하여 이 세상 무엇에도 비겁에 없이 귀중한 색바랜 군공메달,

나는 위대한 전승의 년대에, 존경하는 전승세대에 소박한 다음의 말로 경의를 드리고싶었다.

군공메달의 색같은 바래질수는 있어도 위대한 운인 이 신우리 원수님 계시여 1950년대 조국수호자들의 영웅적위훈은 영원히 빛날것이다. 전승세대의 고귀한 넓은 애국현신을 따라 세월이 흘러수록 영웅의 나라, 선군의 우리 조국에 군공메달은 끝없이 늘어남것이다.

재 히 성

용전사들의 위훈도 넓도 세월의 언덕을 넘어 더욱 친환히 빛을 뿐리게 되었다.

강철의 형장 위대한 수령님의 명령지시로 조국의 촌토를 목숨바쳐 지켜낸 조국해방전쟁참전자들의 위훈과 조국수호정신을 훠세만세 빛내여가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도덕의리의 세계속에서 군공메달은 그토록 값 높고 소중한것으로 되었다.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시기를 말하여주는것으로 하여 이 세상 무엇에도 비겁에 없이 귀중한 색바랜 군공메달,

나는 위대한 전승의 년대에, 존경하는 전승세대에 소박한 다음의 말로 경의를 드리고싶었다.

군공메달의 색같은 바래질수는 있어도 위대한 운인 이 신우리 원수님 계시여 1950년대 조국수호자들의 영웅적위훈은 영원히 빛날것이다. 전승세대의 고귀한 넓은 애국현신을 따라 세월이 흘러수록 영웅의 나라, 선군의 우리 조국에 군공메달은 끝없이 늘어남것이다.

재 히 성

용전사들의 위훈도 넓도 세월의 언덕을 넘어 더욱 친환히 빛을 뿐리게 되었다.

강철의 형장 위대한 수령님의 명령지시로 조국의 촌토를 목숨바쳐 지켜낸 조국해방전쟁참전자들의 위훈과 조국수호정신을 훠세만세 빛내여가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도덕의리의 세계속에서 군공메달은 그토록 값 높고 소중한것으로 되었다.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시기를 말하여주는것으로 하여 이 세상 무엇에도 비겁에 없이 귀중한 색바랜 군공메달,

나는 위대한 전승의 년대에, 존경하는 전승세대에 소박한 다음의 말로 경의를 드리고싶었다.

군공메달의 색같은 바래질수는 있어도 위대한 운인 이 신우리 원수님 계시여 1950년대 조국수호자들의 영웅적위훈은 영원히 빛날것이다. 전승세대의 고귀한 넓은 애국현신을 따라 세월이 흘러수록 영웅의 나라, 선군의 우리 조국에 군공메달은 끝없이 늘어남것이다.

재 히 성

용전사들의 위훈도 넓도 세월의 언덕을 넘어 더욱 친환히 빛을 뿐리게 되었다.

강철의 형장 위대한 수령님의 명령지시로 조국의 촌토를 목숨바쳐 지켜낸 조국해방전쟁참전자들의 위훈과 조국수호정신을 훠세만세 빛내여가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도덕의리의 세계속에서 군공메달은 그토록 값 높고 소중한것으로 되었다.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시기를 말하여주는것으로 하여 이 세상 무엇에도 비겁에 없이 귀중한 색바랜 군공메달,

나는 위대한 전승의 년대에, 존경하는 전승세대에 소박한 다음의 말로 경의를 드리고싶었다.

군공메달의 색같은 바래질수는 있어도 위대한 운인 이 신우리 원수님 계시여 1950년대 조국수호자들의 영웅적위훈은 영원히 빛날것이다. 전승세대의 고귀한 넓은 애국현신을 따라 세월이 흘러수록 영웅의 나라, 선군의 우리 조국에 군공메달은 끝없이 늘어남것이다.

재 히 성

용전사들의 위훈도 넓도 세월의 언덕을 넘어 더욱 친환히 빛을 뿐리게 되었다.

강철의 형장 위대한 수령님의 명령지시로 조국의 촌토를 목숨바쳐 지켜낸 조국해방전쟁참전자들의 위훈과 조국수호정신을 훠세만세 빛내여가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도덕의리의 세계속에서 군공메달은 그토록 값 높고 소중한것으로 되었다.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시기를 말하여주는것으로 하여 이 세상 무엇에도 비겁에 없이 귀중한 색바랜 군공메달,

나는 위대한 전승의 년대에, 존경하는 전승세대에 소박한 다음의 말로 경의를 드리고싶었다.

군공메달의 색같은 바래질수는 있어도 위대한 운인 이 신우리 원수님 계시여 1950년대 조국수호자들의 영웅적위훈은 영원히 빛날것이다. 전승세대의 고귀한 넓은 애국현신을 따라 세월이 흘러수록 영웅의 나라, 선군의 우리 조국에 군공메달은 끝없이 늘어남것이다.

재 히 성

용전사들의 위훈도 넓도 세월의 언덕을 넘어 더욱 친환히 빛을 뿐리게 되었다.

강철의 형장 위대한 수령님의 명령지시로 조국의 촌토를 목숨바쳐 지켜낸 조국해방전쟁참전자들의 위훈과 조국수호정신을 훠세만세 빛내여가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도덕의리의 세계속에서 군공메달은 그토록 값 높고 소중한것으로 되었다.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시기를 말하여주는것으로 하여 이 세상 무엇에도 비겁에 없이 귀중한 색바랜 군공메달,

나는 위대한 전승의 년대에, 존경하는 전승세대에 소박한 다음의 말로 경의를 드리고싶었다.

군공메달의 색같은 바래질수는 있어도 위대한 운인 이 신우리 원수님 계시여 1950년대 조국수호자들의 영웅적위훈은 영원히 빛날것이다. 전승세대의 고귀한 넓은 애국현신을 따라 세월이 흘러수록 영웅의 나라, 선군의 우리 조국에 군공메달은 끝없이 늘어남것이다.

재 히 성

용전사들의 위훈도 넓도 세월의 언덕을 넘어 더욱 친환히 빛을 뿐리게 되었다.

강철의 형장 위대한 수령님의 명령지시로 조국의 촌토를 목숨바쳐 지켜낸 조국해방전쟁참전자들의 위훈과 조국수호정신을 훠세만세 빛내여가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도덕의리의 세계속에서 군공메달은 그토록 값 높고 소중한것으로 되었다.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시기를 말하여주는것으로 하여 이 세상 무엇에도 비겁에 없이 귀중한 색바랜 군공메달,

나는 위대한 전승의 년대에, 존경하는 전승세대에 소박한 다음의 말로 경의를 드리고싶었다.

군공메달의 색같은 바래질수는 있어도 위대한 운인 이 신우리 원수님 계시여 1950년대 조국수호자들의 영웅적위훈은 영원히 빛날것이다. 전승세대의 고귀한 넓은 애국현신을 따라 세월이 흘러수록 영웅의 나라, 선군의 우리 조국에 군공메달은 끝없이 늘어남것이다.

재 히 성

용전사들의 위훈도 넓도 세월의 언덕을 넘어 더욱 친환히 빛을 뿐리게 되었다.

강철의 형장 위대한 수령님의 명령지시로 조국의 촌토를 목숨바쳐 지켜낸 조국해방전쟁참전자들의 위훈과 조국수호정신을 훠세만세 빛내여가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도덕의리의 세계속에서 군공메달은 그토록 값 높고 소중한것으로 되었다.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시기를 말하여주는것으로 하여 이 세상 무엇에도 비겁에 없이 귀중한 색바랜 군공메달,

나는 위대한 전승의 년대에, 존경하는 전승세대에 소박한 다음의 말로 경의를 드리고싶었다.

군공메달의 색같은 바래질수는 있어도 위대한 운인 이 신우리 원수님 계시여 1950년대 조국수호자들의 영웅적위훈은 영원히 빛날것이다. 전승세대의 고귀한 넓은 애국현신을 따라 세월이 흘러수록 영웅의 나라, 선군의 우리 조국에 군공메달은 끝없이 늘어남것이다.

재 히 성

용전사들의 위훈도 넓도 세월의 언덕을 넘어 더욱 친환히 빛을 뿐리게 되었다.

강철의 형장 위대한 수령님의 명령지시로 조국의 촌토를 목숨바쳐 지켜낸 조국해방전쟁

혁명신념은 성공의 열매와 인생의 영광을 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애국과학자들로 내세워주신 평양생물기술연구원
로령영웅 박사 최승복, 박사 팀명성, 김정선, 김춘성동무들에 대한 이야기

과학기술의 시대인 오늘날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관철을 위한 투쟁은 그 어느 때보다도 과학연구부문에서 더욱 격렬하게 벌어지고 있으며 과학자, 연구사들에게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인생의 문제들을 제기하고 있다.

오늘의 시대에 우리 과학자, 연구사들의 과학적 성과와 인생의 결과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시급식은 무엇인가.

이 물음을 대답해 주는 과학자들의 전형이 되어왔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신념과 의리로 하는 것이 혁명이며 신념과 의리로 하여 빛나는 것이 혁명가의 인생행로입니다.』

지난 6월 평양생물기술연구원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리 식의 생물

농약을 연구한 성과를 통해 향후에는 통강냉이를 씹는 팀명성동무에게 험구를 우스개소리로 말했다.

『실장동물 유럽나라에서 빠다와 우유를 먹으며 공부한 사람인데 통강냉이가 그렇게 먹었나?』

팀명성동무도 통당 절반, 진단 절반으로 이렇게 응대했다.

『선생님도 옛 금속총업부장의 딸인데 통

강냉이를 맛있게 들지 않습니까.』

두 사람 다 웃었지만 서로 마주보는 눈

가들에는 뜨거운 것이 고여 있었다.

최승복동무는 자신에게 말하듯 조용히 속삭였다.

『박사도 아닌 우리가 비록 오늘은 〈오

염박사〉라는 말까지 듣고 있지만 망설이면 만

티 한 번 날지 말자요. 허리띠를 끌리며 우릴 공부시켜 준 나라의 은혜를

잊지 말고 생물농약을 꼭 성공시켜 우리 장군님께서 기쁘게 훙발을 드실 때… 그때 가서 오늘은 옛말 하자구.』

마침내 이들은 생물농약의 시험생산에서 성공하였으며 주체 97(2008)년 6월 공장을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 큰 기쁨을 드리게 되었다.

생물농약생산공정을 새로 일떠세우고 공정분석방법을 확립하기 위하여 누구보다 앞장에서 헌신의 땀을 많이 흘린 생물제품공장 지배인 김정선동무와 책임기사

김춘성동무의 기술속도로 농법한 농장원, 사무원의 자식들을 대학공부시켜 나리의 어엿한 직지인들로 내세워준 당의 은덕에 보답하려는 참된 의리가 소중히 간직되어 있었다.

하나밖에 없는 딸자식이 첫아이를 낳았을 때에도, 물레이아를 낳았을 때에도 멀리 출장길에서 『수고했다. 미안하다.』라는 말밖에 할 수 없었던 최승복동무,

위대한 장군님께 보여드리지 못한 생물농

약생산공정을 기어이 성공시켜 경애하는

원수님께 기쁨을 드리기 전에는 절대로 집에 들어오지 말라고 등을 떠밀어주던 어머니의 마지막 모습을 뒤에 남기고 결단코 공장으로 다시 달려나온 김

정선, 김춘성동무들이…

팀구의 첫 기술을 이들파 함께 펴낸 과학자들은 적지 않다. 그러나 종종 젊은 서로 다르다. 결코 실력이나 학력, 재능의 차이 때문이 아니다.

풀들이 공장을 떠나갔다. 마감에는 이 파제

를 책임지고 있던 최승복동무와 당시 생

물농약연구실장이었던 팀명성동무들이

여기 순간에 힘들어졌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원수님께서는

